

# “파멸은 막자”...미·중 무역협상 물밑 대화

### 블룸버그통신 등 보도 재무장관·부총리 측 접촉 “추가협상 미·중 공감대”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양국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이 계획 중인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한 데다, 이와 별도로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 수입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피하고자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 측 실무진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형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미·중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무역전쟁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은 양국이 모두 꺾이지 않는 가운데 몇 주째 교착 상태를 지속해왔다.

협상 재개 기대감에 이날 미국 증시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

미국은 협상 재개를 시도하면서도 추가 관세 부과 카드도 중국을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16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 기간이 끝나 이르면 1일 시작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추가 관세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와 함께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할 관세율을 애초 계획했던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므누신과 류허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계속 대

화를 하고 있지만 “매우 초기 단계”일뿐이라고 전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기존 산업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 등 이전의 제안은 추가적 협상의 토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쓸모 없는” 아이디어를 버리고 “어떤 것이 의제가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이끄는 무역 ‘비둘기파’는 막대한 관세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아왔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의 성장에 타격을 받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43〉 고승 현장

현장(602-664)의 속명은 진위로 하남성 구씨현 출신이다. 서역을 다녀와 많은 불교 경전을 들여왔으며 경전 번역으로 중국 불교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관을 지낸 진혜의 4남으로 머리가 영특했다. 출가한 둘째 형 진소가 낙양의 정토사에 있었는데 아홉 살 때 그를 절로 데리고 가서 불경을 공부시켰다. 집안이 어려워져 입을 하나 줄이려는 의도였다. 유마경, 법화경 등 기본 경전을 배웠다. 어느 해 낙양에서 27명의 승려를 정식 승려로 삼는다는 칙령이 내려왔다. 나이 어린 현장은 응모자격이 없었지만 선발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 보았는데 선발 책임자 정선과의 눈에 띄었다. 정선과는 ‘승려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든가’ 라고 현장에게 질문

에 있는 1만여명의 학승들 중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성취를 이룩했다. 이어 수년에 걸친 인도 편력 여행에 나서 불법에 일가를 이루었다. 641년 귀국길에 올라 대설산(大雪山)을 넘고 파미르를 횡단해 카슈가르, 쿠스티나를 거쳐 644년 돈황에 도착했다. 645년 정월 장안에 도착했다. 제상 방현령의 영접을 받고 낙양으로 가 태종을 접견했다. 장장 18년에 걸친 서역 성지 순례였다. 대승, 소승 불교의 제 학설을 두루 섭렵하고 사리 150개, 불상 7개 경전 647부 등을 가지고 귀국했다. 646년에는 태종의 명을 받들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완성하였다.

태종은 귀국한 그에게 환속해 정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제의 뜻을 거부하고 가져온 불경과 불상을 장안의 흥복사에 모셨다. 현장은 그후 제자들과 함께 75부, 1335권을 번역하였

### 서유기 ‘삼장법사’...3대 불경 번역가

하니 “석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법을 현세에 빛내고 싶습니다” 고 답하였다. 답변에 감동 받은 정선과는 그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 아이를 선발하면 반드시 불문의 귀재가 될 것이다” 고 선발관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일찍부터 현장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수나라 멸망후 당왕조가 장안에 수립되자 과거 낙양에 있던 고승들이 사천의 성도로 옮겨갔다. 현과 함께 성도로 가 공해사에 머무르면서 불경 공부에 집중했다. 622년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되었다. 그는 다양한 종파의 경전을 공부했는데 기존 불경의 해석에 오역이 많고 해석이 분분해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고민 끝에 직접 서역으로 가서 원전을 접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인식하였다. 태종 정권원년(627년) 서역을 향해 장안을 출발했다. 난주, 양주를 거쳐 과주, 이오에 도착했다. 정관 2년에는 고창왕 국문태의 요청으로 고창국에 잠시 머물렀다. 이후 사마르칸드, 쿤드르 등을 거쳐 카비시국에 도착했다. 이후 갖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631년 목격지인 인도의 나란다사에 도착했다. 5년여 세월을 걸쳐 깊이 있는 경전 공부로 나란다사

다. 모두 133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었다. 당나라 시대에 번역된 경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대반야경’ ‘심경’ ‘해인심경’ ‘유가사지론’ ‘성유식론’ 등이 대표적 경전이다. 664년 입적할때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경 번역에 전념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 우아한 문장으로 불경을 번역했다. 구마라습, 진제와 함께 중국 불교의 3대 번역가로 평가되었다. 귀국 후 20년간 계속된 불경 번역 사업은 중국 불교의 융성 및 동양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가론과 성유식론으로 대표되는 유식학을 창시하였다. 중국 승려 규기와 신라 출신 원측이라는 걸출한 제자를 두었다. 둘은 유식학의 쌍벽을 이루었다. 규기는 자은사를 중심으로 원측은 서명사를 중심으로 형성, 전승되었다. 664년 만 62세로 입적했다. 그는 산골짜기 외진 곳에 자신을 안치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종은 그의 유골을 장안 동쪽 교외의 백록원에 묻었다. 현장을 존경한 고종은 그의 유골이 안전하지 않소사했다. 측천황후가 669년 유골을 장안 남쪽의 소릉원으로 이장하고 흥교사를 세웠다. 그는 불교의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능해 삼장법사로 호칭되었다.

## 한국인 1명 리비아서 28일째 억류...정부, 청해부대 급파

### 무장단체 소행...요구 아직 없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8일째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상이 1일 공개된 가운데, 조만간 납치 세력이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구조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이 회사 관계자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28일째인 현재까지 납치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요구사항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납치세력이 현지 지방 부족 세력 산하의 무장 민병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영상이 공개된 만큼 납치세력 측에서 조만간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분 43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 (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또 “나는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가운데)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날 ‘218뉴스’라는 리비아 유력 매체 페이스북 영상에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밝힌 남성 1명과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남성 3명 등 총 4명이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찍혔다. <218NEWS 페이스북-연합뉴스>

다(too much suffering, too much problem),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my wife, children too much headache regarding me), 제발 대통령님 도와달라”고도 했다. 필리핀 국적이라고 밝힌 나머지 피랍자들도 “대통령”을 거론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동영상에는 납치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든 채 피랍자들 주변에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영상의 촬영 시점, 누가 찍어서 언론사에 제공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리비아 현지 한국 공관 직원이 영상을 발견해서 외교부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영상으로 우리 국민 생존이 확인됐고 외관상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특이한 것은 이번 동영상에서 납치세력이 자기 신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고 특별한 요구사항도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발생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리비아 정부와 현재까지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 라인을 통해 리비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납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부족 세력 등을 통해 다각도로 구조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건 발생일 저녁 합참은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연합뉴스

### 일본 41도 기록 경신 온열질환 125명 사망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일본에서 올해 봄 이후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전달 발표한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4월 30일~7월 29일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응급후송된 사람은 5만 7534명이었으며 이 중 125명이 사망했다. 올해 응급후송자 수가 작년(5월 1일~9월 30일)의 5만 2984명을 이미 앞지른 것이다.

응급후송자 수는 2013년(6월 1일~9월 30일) 5만 8729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4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 4345명, 아이치 425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사이타마에서 가장 많은 12명이 발생했다.

응급후송자 중 1449명은 3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였다. 고령자는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올해 여름 유독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의 기온이 41.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열도 전체가 35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맹렬 더위로 신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